

# “불·유교 교류사 밝혀 미래사회 대비”

## ‘韓·日 문화이해’ 국제학술회의 일본속 ‘한국문화 영향’ 공동연구도 제기

같은 한자(漢字)문화권에서 불교와 유교라는 사상의 공통 분모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역사적 길을 걷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국사상사학회(회장 김상룡)와 일본비교사상학회(회장小山田丸)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2~3일 동국대에서 ‘한·일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한 제문제’란 주제로 95 한국사상사학회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일본측에서 일본비교사상학회 회원학자 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양국 중견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기조강연에서 박성봉 경희대 명예교수는 ‘사상사에서 본 한·일문화의 위상’을 통해 ‘한·일 양국은 그동안 농경시대에 가장 대표가 되는 佛·儒를 통하여 사상 내용과 전개 교류를



◇ 지난 2~3일 동국대서 열린 ‘한·일문화의 상호이해’ 주제의 국제학술회의. 한·일 공동교과서 제작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함께 규명함으로써 고금(古金)의 위상과 의의를 찾아 21세기를 전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대 한국문화의 일본문화에 대한 영향을 양국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 공동교과서 제작 등 양국관계에 관한 통사를 시작해 완성한 이 학술지는 불교학계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공동교육학의 국제화를 위해 10년전부터 원력을 세우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완성한 이 학술지는 불교학계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 비교’를 발표한 구모이 쇼젠(雲井昭善) 대교대 명예교수는 양국 불교사상·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깊이 관계돼 온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한·일문화 비교했다. 즉 한국에 있어서의 미륵신앙의 주류는 미륵하생경에 의한 하생(下生) 신앙이며 도솔상생(上生)신앙은 부차적이지만 일본은 그 반대라는 것. 미륵의 하생을 기원하는 하생신앙은 사회와의 긴장관계에서 나타나지만 도솔의 정토왕생은

번뇌에 찌든 인간의 내면적 자각과 연관된다. 이어 김상현 한국교원대학교수는 ‘원효저술의 일본 유훈과 그의 의의’에서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일본저술을 중심으로 일본불교사에 끼친 원효 교학

의 영향을 조명했다. 김교수는 ‘일본에서 원효의 저술을 인용한 경우는 8세기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30여명에 달하고, 인용이 확인되는 원효의 저술은 25부 정도’라며 ‘원효 교학은 각 시대의 학승과 여러 종파에 고루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불교에 있어서의 사원의 사상’을 발표한 미야다 게이이쿠(前田惠學) 愛知學院大 교수는 ‘한·일·스리랑카 사원의 신불합합(神佛結合; 본존불과 토착신들을 함께 수용하는 것) 사상을 비교했다. 또한 최병현 서울대학교수는 ‘한일 일제불교의 침투와 식민지 불교의 성격’에서 일제의 정토진종 대국파(大谷派)를 중심으로 한 종교침투사와 한국불교계의 무기력한 반응을 조명했다.

김재경 기자

## 국내 첫 국·영문 학술지 창간

### ‘종교교육학 연구’ 불교학 국제화 진일보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국내최초의 국·영문 혼용 학술지인 <종교교육학연구(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창간호를 20일경 발간한다.

국내 대학부설연구소 1백여 곳과 미 일 유럽 대만 멕시코 등 2백여 곳의 해외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에 배포될 이 학술지는 박선영(동국대)교수의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등 5편의 미발표 논문과 지난 6월24일 열린 창립학술회의 논문 및 토론요지를 수록하고 있다. 박선영교수가 불교를 비롯

한 종교교육학의 국제화를 위해 10년전부터 원력을 세우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완성한 이 학술지는 불교학계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관련 논문은 △불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권은주 동국대교수) △원시불교교육의 방법론적 이념으로서의 漸進性에 대한 연구(최봉수 동국대교수) △종교적 신리의 공동 원형론과 종교교육: 칼 융의 종교론을 중심으로(김종표 동국대교수) 등이다. (02)275-2607

## 한국불교학 20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가 20일경 발간하는 김인덕교수 회갑특집 기념호인 <한국불교학> 제20집에는 ‘삼론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25편의 논문이 수록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논문집에서 눈길을 끄는 논문은 동국대 김영태 김인덕교수와 김용표씨(동국대교수)



◇ 김영태 교수 “중국삼론종 초조 고구려 승랑 확실”

## 삼론사상 집중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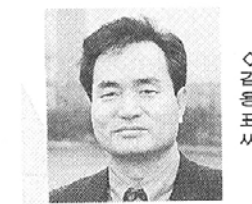
삼론학을 완성한 길장(吉藏)의 직계인 승랑이 남조(南朝)에 와서 삼론을 필적으로써 소승론인 성실론(成實論)이 사그라들고 삼론학이 크게 일어나게 됐다. 김교수는 “중국 특유의 일승(一乘)불교적 교학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원인의 하나가 승랑의 학구적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



◇ 김용표 씨 파사현정 수행 다각도 분석

## 삼론사상 집중 조명

가 갖는 철학·사상에서 성실론 및 대승일각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네 분야로 찾아내어 비판·부정했다. ‘현정’을 통해 밝혀지는 율승(正法)에 대해서도 왜 옹고 어떤 기능·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말로 설명되어야 하는지를 밝힌 편찬이 아니라 정사(正師)임을 밝혔다. 김교수는 “중국 특유의 일승(一乘)불교적 교학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원인의 하나가 승랑의 학구적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



◇ 서구학계선 삼론학연구 활발

## 한국禪 원류 ‘구산선문’ 밝힌다

### 보조사상연구, 21~22일 송광사서 학술회의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은 10월21~22일 송광사에서 ‘한국선의 원류-나말려초 구산선문’을 주제로 제8회 학술회의를 연다.

김영태(동국대)교수 허흥식(정문연)교수, 동국대 교수인 성본승님·현각스님이 ‘구산선문의 성립과 그 성격에 관하여’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 ‘신라선의 사상적 특성’ ‘남해 무명의

무실토론’을 각각 발표했다.

종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종교학회(회장 김희성)는 11월4일 오후 5시 이화여대 인문관11호에서 ‘한국종교사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연다. 불교분야에서는 ‘복종신수의 선’(강해원) ‘능엄경의 관음신앙’(조용환) 등이 발표된다.

의 ‘고구려 승랑(僧朗)에 대한 재고찰’ ‘삼론학의 파사현정론(破邪顯正論) 오지’ ‘서구에서 종관학 연구동향: 삼론사상의 현대적 조망’ 등 3편. 고구려 승랑의 중국불교학사 위치를 밝힌 김영태교수의 논문은 그간 승랑의 행적에 대한 불충분한 사료와 이설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김교수는 “중국삼론종의 초조(初祖)는 승랑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강조한다. 중국 삼론교학이 전개하는 파사(破邪: 사함을 깨뜨림)와 현정(顯正: 정의를 드러냄)의 대상과 내용을 밝힌 김인덕교수는 중론(中論)에 나타난 파사현정과의 비교를 통해 ‘파사현정 수행’의 확대를 분석했다. 삼론교학은 ‘파사’의 대상으로 되는 잘못(邪見·오류)을 유부(有部)의 아비달마교학을 넘어 인도와 중국의 의도(外道)

## 삼채전심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전적에 이르기를, 선은 불심이고 불교는 불화(佛話)라. ‘불심은 삼채전심 즉 염화미소와 다지달 앞에서 반자리를 나는 것, 사리쌍수 아래서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인 것이다’ 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김인화·서울 양천구 목2동)

## 술먹는 날은 참선을 거르는데

저는 요즈음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30분씩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할 때는 스님께서 일러주시대로 ‘주인공을 관’하고 있습니다. 한 년쯤 그렇게 해왔는데 가끔 술을 먹는 날이면 거르게 됩니다. 제가 실천력이 부족해서 스스로도 걱정입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학·경기 안산시 목내동)

삼채전심이 무슨 도리나 하면 그게 바로 한마음 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닌 깨달음 비록 모양새로는 너와 나 각각 있지만 근본은 둘이 아니다 라는 법을 전하신 것입니다. 염화미소가 그것이지요. 또 자리를 내주시는 것도 삼계가 다 한 도량 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한 자리에서 세삼만사가 다 함께 불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관 밖으로 발을 내보인 것 역시 생멸문을 넘어 진여의 자리에선 한 땅, 한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한마음 깨달으면 도리를 알 것이요 깨닫지 못하면 모를 것이다, 그것을 방편으로 보여주노라 하신 것입니다. 삼채전심이 사상이나 아니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삼채전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술을 먹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술을 먹은 사람도 처사님이요 주인공을 관하는 것도 처사님입니다. 그렇게 일체를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마음 편히, 오늘은 걸렸구나 하는 생각에도 걸리지 말고 묵묵히 해나가세요. 이 일 저 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일부러 정해놓은 시간에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팔뚝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단 10분이라도 주인공을 관한다니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 보세요. “주인공 네가 있기에 네가 있다는 증명도 할 수 있다. 네가 있기에 이 모습도 있는게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한 순간이라고 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앓고 싶을 때 앓아 보세요. 부처님께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세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부신 북구 김전동)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요. 그러나 불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불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서 지식으로 삼으려 들면 진정한 공부가 못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만간 지구가 망가질 일이 생기고 생명들이 위태로워지고 이천년대엔 종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야 인간의 탐욕을 경고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인간이 노예로 산다면, 다시말해 마음도리를 모르면서 수억급 쌓아올린 업식의 노예로 산다면 종말이 있을 수 있지요.

서는 망상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 참선하라 하셨습니다. 망상을 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이 천차만별로 벌어진 까닭

불성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천차만별로 벌어진 형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요한·부신 북구 김전동)

그러나 마음도리를 안다면 둘이 아닌 깨달음에 종말이란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만 있다해도 종말이 아니며 흙만 있다해도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통은 지수화풍 사대가 뒹굴 때 사람이냐 하고 흠어지면 안 보이니 허무하다 하지만 사대가 다 생명이네 어찌 없다 할까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한마음도리를 깨우치는 게 이 공부입니다.

불성이란 일체 만유의 근본입니다. 이 우주, 이 천지를 떠받치는 불기둥이라고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지요. 부처님같이 어떻게 천차만별로 벌어진 나 하시는데 말로 설명하자니 비유를 들어 볼 수 밖에 없겠어요. 바위가 굴러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굴러야만 그 축, 심방이라도 좋은데, 그 축이 힘을 전달해 주어야 굴러지죠. 불성은 바위를 굴리게 하는, 즉 바위를 굴리는 중심축, 심방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과 불성은 어떻게 다른지요

영과 불성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갈호준·광주 북구 운암동)

다르지요.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 영혼이란 사람들이 제 각각 생각을 내는 그릇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은 부처님같은, 더 함도 덜 함도 없고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면서 만유의 근본이 되니 이를 일러 묘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승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722-7755

##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를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를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 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화·수·목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1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특강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현대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수시 입학 가능 ※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향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권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16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범고) 다루는 법, 도량식, 뒷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업 법: 요점파라, 천수파라, 도량계, 다계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본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1995년 10월 1일 ~ 11월 13일
- 개강일시: 1995년 11월 1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해리우도 극장에서 정음방향  
구산빌딩 앞 경향빌딩 2층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 海東佛敎大學

### 儀式敎育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隱